東亞日報

社說

學園의 病魔

盟休를 愼防하라

近日 各學園에는 同盟休學이 傳染病이 流行하드시 學園에서 學園으로 蔓延되고잇다。學園의 靜謐을 깨트리고 이처럼 流行病的 事態가 蔓延하고잇다는것은 學園을 爲하야 學徒自身을 爲하야 不幸한일이다。그동안 배움의 自由가 없엇고 그機會를 못찻고잇든 이땅의 學徒인지라 주렷든 배에 먹을것을 어든것처럼 學園으로 學園으로 배움의 길을 찻게된 그들의 意志 허수할理 없으며 그들의 배움과 硏磨에 朝鮮의 將來가 또한 期待될이만하라하니와 數로서 局限된 몇개의 學園에 그들이 차지한 (배움의 그한자리가 갑은 念願의 몇十人式을 代表한 貴重한 處地라할 의 幸福感보담도 그 幸福感의 裏面에는 또다시 그 責任이 크다함을 알어야할 것이다。그러므로 그러한 處地와 幸福感과 責任에 對한 自省이 없이 盟休를 輕擧하야 一刻千金의 時間을 浪費하고 모처럼 아까운 精力을 이에다 消耗한다는 것은 學徒自身과 國家將來를 爲하야 이얼마나 可惜한일이랴。

二

政情이 混頓되어잇고 社會가 아직도 不安한 形便이며 學制또한 그施設과 機構가 完備되엿을 배못된다 朝鮮의 온갓것이 建設의 草創이라할지니 不完全으로부터 完全으로의 過程에 잇음은 말할것도 없으리라。이러한 情勢下의 오늘의 學徒는 精神的으로 이를 超克하면서 明日의 礎石이 되리라하는 覺悟가 잇을지니 도리켜 생각하야 이와 같은 形便가운데서 배움의 機會를 가지게되엿다는 그들의 處地가 얼마나 幸福스러운가를 다시금 느껴야할것이다。그러나 오늘의 學徒라고하야 다만 滿足할것만을 慫慂하는 것도 아니다。學園의 充實과 배우기 爲하야 조흔 條件을 翼望하는 意慾은 當然하다는것을 認定하는것이다。그러나 이와같은 純情의 慾求만이라면 何必 盟休란 手段을 擇하지 안호면 안되리라는 論理가 어데잇으리오。萬一 그러치안코서 다만 盟休가 目的이요 또 手段이라할진댄 이는 確實히 自家冒瀆의 甚한 者라할것이며 또때로서 不得已한 境遇가잇다고 하더래도 眞心으로 眞理를 爲하는 學徒로서는 盟休로서 果然 무엇을 엇게되는가를 다시금 冷靜히 反省할 必要가 잇지 안흘가 함임니다。

三

이지음의 盟休는 그 樣態로 보아 대체로 一色이다。갈은 病菌으로 因한 流行性的 現象인것에 틀림없는것이다。單純히 時代的 風潮로만 看過하기에는 너무도 惡質의 病魔가 잇는가 시프다。惡質의 病魔가 이처럼 學園을 노리고잇다면 政治的 인 謀略이 그처럼 學園을 弄絡하려한다면 이는 學徒스스로가 그 反犯을 警戒해야할것이다。우리는 學園의 盟休가 民族運動의 先鋒이 되엿든 經驗을 가지기도 햇다。三一運動의 先驅가 學徒이엿고 뒤이여 光州學生事件을 絶頂으로하야 京鄕의 學園에서 盟休가 盛行되엿든 것이니 當時의 情勢로는 盟休가 倭政의 壓迫에 對한 反抗이엿고 民族的 鬱憤의 爆發이엿던 것으로 오늘의 그것과는 性質이 달럿다 오늘의 學徒에게는 解放祖國의 文化建設과 急速한 科學發展의 使命이 負荷되엿다는 것을 알어야할지니 寸刻을 다투어 學修硏磨에 全力을 다하여야할것이다。諸君은 이미 彼日本의 學園消息을 들음이 잇엇으리라。그들은 敗亡祖國의 新文化建設을 爲하야 머리를 동여매고 發奮하고잇다는 消息을 엇지 허수이 들엇는가? 그러치안해도 그들보담도 뒤느진 우리는 그들에 몃倍하야 刻苦勉勵가 必要할지니 學徒여 寸陰을 다투라。同盟休學보담도 먼저 배우고 硏磨하라。

朝鮮問題에 關하야 ―李博士「와싱톤・스타」에 寄稿

强制共産化에 對抗

統一民主朝鮮共和國建設爲해 鬪爭

[華盛頓十四日發AP合同]李承晩博士는 「와싱톤・스타ー」紙에 朝鮮問題에 關하야 寄稿하엿는데 그要旨는 다음과같다 (寫眞은 李承晩博士) 現在 朝鮮을 占領하고 있는 美蘇兩軍의 第一目的은 兩軍各自의 占領區域을 撤廢하고 朝鮮民衆의 要望에 依하야 統一政府를 樹立하는데있어야할것이다 現在全國民은 偉大한犧牲을 覺悟하고 統一民主的 朝鮮共和國建設을 爲하야 鬪爭을 하고있음에도 不拘하고 朝鮮共産主義者들은 公然히 故意로 이에 障碍를 주고있는것이다 蘇聯占領軍은 朝鮮을 共産化시킬라고하고있으나 朝鮮民衆은 强制的共産化에 對抗할 決心을 하고있는것이다 우리로서는 世界平和와 繁昌을 爲한 美國民主々義思想에 依하야 弱少民族을 解放하고 民主々義化식힐 意思를 자진 美國民衆에 希望을 가질뿐이다 朝鮮民衆은 世界에 對하야 무엇을 要請하느냐 않느냐를 明白히할 權利를 갓인것이다 萬若南北이 統一化하는 機會가 授與되고 適當한 時期에 總選擧가 遂行될때까지 朝鮮의 臨時統一政府樹立이 承認되고 우리의 政治的行政的 主權과 領土保全이 尊重되고 保障된다면 朝鮮民衆은 協力할것이다

敎室서 政爭은 墮落

在美朝鮮人協會長 金龍中氏談

[華盛頓十五日UP發 朝鮮]在美朝鮮人協會々長 金龍中氏는 朝鮮에서는 一部敎師와 學生이 敎室에서 政治鬪爭을 謳歌하고 있다는 말에 言及하야 「如斯한 行動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勿論하고 敎師가 아니라 煽動家다 따라서 새로히 獲得한 政治的 自由를 享有할 資格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朝鮮의 將來는 오즉 靑年敎育의 可否에 달려있다 敎師는 學生을 煽動하야 政爭에 捲込시켜서는 않된다 萬事에는 時期와 場所가 있는 法이다 萬一 國民이 各自의 職責을 버리고 모든 時間과 精力을 政治에만 傾注한다면 國家로서는 이以上 不幸한 일은 없을 것이다 民主々義國家의 國民은 政治問題뿐만아니라 經濟社會問題에도 關心이 놉다 各自는 各自의 職責이 있다 敎師는 敎育에 專心할 것이며 農夫는 耕作에 牧師는 靈的 幸福의 向上에 / 技術者는 機械박휘가 回轉하도록 힘써야할것이다 萬一 그러치않라면 우리國家는 運營을 못해나갈것이다 萬一 우리가 民主主義國家建設을 完成코자한다면 政治的特權을 濫用하여서는 않될것이다 그럼으로 敎師는 政治科學과 政治鬪爭을 識別하지않으면안된다 敎師가 政論에 餘念이없으면 이는 神聖한 職業의 冒瀆이요 敎育制度의 墮落이다 敎師로 假裝하고 學園에 潛入한 政治家는 곳 罷免하여야할것이다 萬一 適當한 措處를 講究하야 學園으로부터 即時 이러한 煽動家를 追放치않는다면 國家에는 民主主義도 없고 다만 混沌이 잇을뿐일것이다

李博士 南朝鮮 視察

李承晩博士는 南朝鮮地方巡視次로 十六日 京城을 出發하는데 時日은 約二週日間 豫定이며 第一 처음에 大安으로 向한다한다

횡설수설

▼政府가 서고 政綱이 바로잡히고 서야 비로소 敎育理念도 바로서고 學園施設이 完備되는 것이라면 ▼朝鮮에는 아직 缺陷없는 學校와 抵抗없는 敎授陣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것이 차라리 正見일 것이다 ▼그럼으로 近皿 서울안에 學生의 盟休가 자진것도 그原因과 理由를 볼것없이 다만딱한생각이 들뿐이엇다。▼單純純直한 그들의가슴에 性急히 挑作되는 새希望을 性急히 마추어주지 못하는 複雜多難한 社會事情을 咀呪할뿐이다。▼터구나 盟休生의 背後云云은 미더지지 않는말이다 子女를 키우는者라면 子女를 가르키는者라면 제子女가 學生이요 제自身이 學父兄이거니 ▼아모리 政權의 野慾에 手段方法을 가리지 안는 心臟이라 할지라도 ▼제子女를 政治의 道具로 使用키爲하야 謀略의 盟休를 煽動助長할者는 없을것이라한다。

民族紀綱의 肅淸

民衆裁決의 收集

五千年의 悠久한 歷史를 通하여 지금 우리民族은 가장 嚴肅한 마당에서 全民族이 光復의 聖業을 이룩하려는 거룩한 아침이다。이 聖業을 妨害하려는 者 이아침에 한사람도 있을理없다! 우리가 이러한 속에 그러나 우리들의 筋肉속에、血管속에 生命을、노리는 病菌이 果然 없는가? 民衆의 靑血을 빨고、우리의 獨立을 拒하는 者 없는가? 所謂 親日派、民族反逆者、惡質守錢奴、惡質謀利輩、惡質官公吏、惡質思想家等이 果然없는가? 이제 本社에서는 重刊初에 내세운 公約中 하나인 「民族的綱紀肅淸」의 基礎材料를 蒐集코저 한다。이들의 肅淸工作 將次 適當한 時期에 適當한 機關과 方法이 있으려니와 本社는 于先 그 第一步로 惡質의 守錢奴와 惡質의 謀利輩가 누구임을 規定하기 前에 民衆의 意思와 民衆의 裁判을 들어 民意의 所在를 蒐集하여보려고 한다。

惡質守錢奴란 八・一五以前 日帝治下에 民族의 靑血을 빨어 巨財를 모흐고 나아가 戰魔에 忠誠을 다하려고 巨額의 獻金을 아끼지않었으되 光復運動에는 抽身傍觀하는 者를 가르침이니 그 中에도 가장 惡質者는 누구인가? 謀利輩란 八、一五以後 日人財産을 接受하여 惡用하는者、富力을 믿고 經濟混亂을 틈타서 私腹을 채우는者、權力과 結托하야 利權을 惡用하는 者들일것이다。本社特設輿論調査局에서는 이미 肅淸工作에 對한 調査의 大方과 標準을 세워 積極推進하려는 바이나 滿天下讀者와 全民族이 하나이 되어 各々 自己隣近에 있는 이러한 惡質分子의 事實을 具體的으로 具詳細히 列擧하여 다음같은 規定에 依하여 本社輿論調査局으로 投書해 주기를 바란다

投書規定 (1)守錢奴、謀利輩의 區分 (2)姓名 (3)住所 (4)職業職啣 (5)不正事實의 具體的概況 (6)投書人의 姓名住所(匿名도無妨)

第一回

惡質守錢奴는누구?

具體的事實을 指摘한 投書大歡迎【五月十五日까지】

惡質謀利輩는누구?

本社特設 輿論調査局

美蘇委員에게

獨立促成愛國婦人會 許永淳

美蘇兩國軍은 光輝있는 勝利를 하고도 多年間 戰場에서 시달린 몸을 쉬일새도 없이 疲困한 다리를 고 우리 韓國에 온후 七八朔이 넘도록 그리운 故鄕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진 수고를 하게되니 一邊 感謝하며 一邊 未安함을 禁할수없다。그대들은 多年間

懷鄕病

에 눈물지우는 때도 만흘것이다。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대들이 하로라도 빨리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잠시 마렷다가 내노흘줄만 알엇든 우리살림을 都大體 언제나 우리에게 돌려주고 서려는가。八・一五 解放以後 美蘇兩軍이 우리삶림을 마러하게 되자 三八線이 비저내는 悲劇과 慘狀은날이 갈사록 甚하여가며 物價高와

食糧難

은極度에 이르러 이곳저곳에서「아이고 못살겟소」하고 아우성치는 소리는 귀를막고 눈을 가려도 안듯고 안볼수 없으며 「어찌살가」하고 歎息소리는 땅이 꺼질 지경이다。三千萬이 이처럼 塗炭에 빠진것을볼때 그대들은 責任感을 느끼지 않는가 美소兩國은 世界列强中에서도 一位를 點領한

「民主國」

이므로 速히 韓國을 獨立國으로 만들어 줄줄만 밋엇기때문에 우리는 秋毫도 疑心치않고 그대들의 指導만 밧엇거늘 오늘날 이모양으로 危機에 이른것을 우리와 잘못이라고는 못하리라。다만 이제와서는 美蘇兩國의 誠意까지 疑心케된다。惡魔에도「한서방이 두主人을 섬길수없다」고 하엿거든 한나라를 南北으로 갈러놋고 두主、이南北에서서로 제뜻만 마치라고하니、骨肉相爭하게 되는것도 當然한일이 아닌가。이모양대로 간다면 우리는 멀지않어서 自壽之境에 빠지고말론지도 우모르겟다。美蘇共同委員諸氏여 남의발등의 불이라 直接、뜨겁지는 않을망정 眞情으로 正義를 사랑하거든

三八線

으로 몽여매노흔 우리의 몸몽이나 速히 풀어줄지어다。내손으로 볼을 꺼보기나하면 快이나 없겟다。第一次美蘇會談이 한달이나 걸리기에 우리韓國을 完全獨立國家로 만들기에 너무 事務가 만어서 時日이 오래 걸리는줄로만 알고 은근히 가쁘하고 感謝햇스나、그結果는 너무 期待에 어그러짐으로 입맛이 써서 말할勇氣조차 잃어버렷섯다。그後 第二次會談만 鶴首苦待햇더니 그도 豫定보다 느저지는때 너무말이 焦躁해서있는 간장이 다마를지경이다。美蘇代表들이여 이번만은 우리에게 失望을 주지 말지어다。우리의

獨立病

은요새와서는 너머도 鎭痛이 甚하므로 견디기어렵다 참기어려운 모든苦痛을 입설을깨물고 이번會談의 成果만기대리고 잇오나 곳 우리의 올올은 더질못 더질못한다。그대들은 우리의 渴望하는바가 두말할것도 없이 完全自主獨立인것을 잊저서는안된다 잘하던못하던 우리손으로 우리살림을 해보기만이 所願이다 (끗)

人事往來

▲李寬燮氏(京畿公立中學校長)就任人事次來訪 ▲申鉉寶氏(乙友會館長)人事次來社 ▲梁一泉氏(天道敎靑友黨中央委員)十四日午前十一時八判町一二八番地自宅에서別世 ▲朴明濟(全羅南道警察部長)警察硏究會出席中洛京人事次本社來訪

李朝實錄 影印縮刷 全八百八十■冊
李朝實錄刊行趣旨書와 豫約申請書를드리겟사오니、五圓同封하여申請하십시요。本實錄은學校・團體・史學專攻同好者께만나누것습니다。豫約開始!
서울市北米倉町九三의一〇 正音社

韓國痛史 (近日出刊) 謙谷朴殷植先生著 上下合册菊版 四〇〇頁 豫約接受中 每部十圓 臨時定價
우리公論 第三號 (近日出刊)
서울市中區明治町一丁目一〇 白民會出版部 電話本局五二九・五■・■ 私書函京城中央郵便局八〇

各種理化學硝子器・各種醫療硝子器 各種암풀・注射器・其他硝子器各種 製作販賣
▲注文主의要求에依하야迅速히應함니다 ▲朝鮮의發展을爲하야奉仕的廉價로提供함니다
官公署 各病院 各學校 各工場 專屬用達
朝鮮化學醫療硝子器製作所 漢城市黃金町五丁目二五五 代表者 康漢秉 電話東大門局⑤三二五 ⑤〇一〇四

吳眼科 院長 吳漢穆 서울市旭町二丁目八(昭和通看護婦會跡)

打拔金型 鍛物機械 電氣用品金物製品 プ레스機械 各種工作機械
朝鮮金型株式會社 서울市西大門區義州通一丁目二九 電話光⑤二二六五

謄寫原紙・複寫紙 타이프原紙及카ー본紙 文房具 雜貨
漢城市南大門通三丁目一八一 大氣堂總販賣部 泰和貿易商會 電話本局②四七番 二〇六番

독안이루쓰보(黑鉛坩堝) 3―200番까지 끝고루만이잇슴니다
맨들긴 水原독안이工場 朝鮮坩堝工業株式會社 水原邑細柳町二區一四二 電話四六四番
팔기는 協成機械商會 漢城市中區南大門通五丁目一 電話本局②五八三六

代用食糧도配給

쌀增配는아직可望없다

李시장(市長)談

심각하든 쌀문제는 지난八일부터 실시한 한사람하로한홉배급으로서 일단수습되어 적으나마 시민은 이것으로그날그날연명해가는중인데 이한홉배급이 언제나두홉으로 증배될지 또는방금실시중인 미곡수집의성적과 압흐로의 자유반입 대용식(代用食)장려등에대하야 十五일 서울시장 이범승씨는 다음과가치말하였다

一合配給 지금실시중인 한사람한홉의 쌀배급은 그대로계속될것이다 이배급을끈치않으려고 군정청에서는노력을거듭하야 미곡수집을강화하고있다

米收集成績 미곡수집성적은날로조화가는데 이대로성적이조호면한홉배급은항구적으로 실시될것이다

二合配給 두홉배급은당분간 불가능할줄안다 반입이잘되여압부시민의 식량이해결된다면 거기에따러 두홉배급이 자연실시될줄로믿는다

自由搬入 아모런제한도 없이 반입을 방임한다면 거기에또모순이생기는때문에 十월十五일까지 한사람두홉의되외(搬外)반입만 신청을허가하기로되여 四월十五일부터 실시하게되였다 이것은군정청이 각방면의진정을참작해서한것인데 도외반입이잘되면二홉배급이 곳될것이다

代用食 식량문제는조선만이아니고 세계각국의 공통된문제인데 목하춘궁기를압두고 우리는 주요식량만을 말할것이안이라 대용식 장려에힘을써야한다시(市)에서는 지금 국수 감자(馬鈴薯)가튼것을 수집하야 배급할계획이고 또각가정의 원예를장려하야 소채증산에 힘쓸계획이다

度量衡器使用

新制度實施까지「메ー타」制使用

군정청에서는 신도량형(新도를 실시코자 방금준비중인데 신제도가실시될때까지는 미국식 일본식 고대조선식 중국식의 각도량형의 사용을 금지하고 「메ー타」제도를 사용하리라한다

太平婦女啓蒙協會發足

해방된 부녀들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내 중앙예배당 유각경(兪珏卿)씨외 十九명의발기로 이번에 태평부녀계몽협회(太平婦女啓蒙協會)를 조직하고전국적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키로되엿다

謀略性띤盟休에

反對鬪爭委員會서活動

이지음전염병처럼 시내여러학교에서 동맹휴학이 빈번히 이러남으로재경학생들로써 조직된재경동맹휴학반대투쟁위원회(在京同盟休學反對鬪爭委員會)에서는 학원의신성을 사수하고 휴학한 각학교생에게 즉시등교하기를 적극적으로 충고하는 동시 동휴의 이면에는 모략적인책동이있다하야 이를방지하고저 분투하고있다

朝鮮文化團體聯盟主催로

昨日부터民族文化建設會開幕

민족문화건설의기치를 노피내걸고 조선문화단체연맹(朝鮮文化團體聯盟)에서는 작十五일부터 시내 종로Y·M·C·A강당에서 민족문화건설전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첫날은 오전九시부터문화각분야를 망라한 다수문화인이 참석한가운데 열리엇는데 十五일에는 먼저 박치우(朴致祐)씨로부터 민족문화 세계관에대한 언술이잇고 이어 리원조(李源朝)씨의 민족문화건설에잇서서의 문화유산계승 문제 김영건(金永健)씨의 민족문화와언어 박준영(朴俊泳) 유응호(柳應浩)양씨의 민족문화문제 김태준(金台俊)씨의 조선문학문제등의보고강연이잇섯다

그런데 금十六일은 경제 법률의보고강연이잇고 十七일은 광공업 十八일은 과학 교육 체육 언론 十九일은예술부문등에대한보고연설이잇슬터이다【사진은동전국회의광경】

美國製高級藥品

道內各病院에配給

경기도내에중요한의약재료품이 품절되여 도민의 보건위생에 막대한지장을 주고있든「설파다이아진」「설파지아졸」「마취용에텔」「비타민A·D」를비롯하야 三十여종 약품과 위생재료를 二十일경부터 경기도(의약품배급회사외 三회사)를거처 도내五백十一개소진료소와 五十二개소의 의무실병원에 배급하기로되였다

이번 배급약품은 미군이 사용하든것으로 경기도할당액수는 약二十四만원가량이다

踏破記

三八線以北 咸鏡道班 HH社特派員

3

학생사건은이미 신의주(新義州)와 평양(平壤)에서일어나 다수한희생자를내이고또함흥에서 이일을못게되니 어찌술푸지 않으랴? 三월十一일함흥의전(醫專)학생들이 「우리들의식량은어디로」라는 기치를들고먹고야만공부도한다고 웨치면서가두행진을한후 도인민위원회를방문하고식량대책에대한 책임잇는대답을 구하였으나 보안대의위협으로 밤에야해산하고동十二일에는 함흥농업학교가 궐기하여 역시시가행진을한후 도인민위원회를차저왜놈들에겐 四홉식배급하여주면서 웨우리들에게는二十여일채아무런배급이없느냐? 그리고왜놈들은웨빨리보내지안느냐고질문 하엿으나 또간부측에서는지난겨울동안함흥시내에서만 일본인사망자一만三천명을내이게되어 소련군사령부에서특허미곡배급을 중배한것이므로우리들의간섭할문제가 아니라고하자 학생들은격분되어우리들도굶어죽어야 쌀이나올것인가라고 웨치며절규를연발하여형세자못급박하게되었으나 역시보안대의위협으로밤늦게해산하였다

다음 十三일에는 영생중학(永生)을 비롯하야 함남중학 함흥상업 실수(實修)녀학교 학생 一천수백명이 애국가를 노피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다가 화물자동차에 실은 보안대의 란사하는총에마저 즉사五명 중경상자수十명을내이고 시민一명이 즉사하면서도 행진을 계속하매 소련군마저 출동하여 따발총을 상점가에 란사하는통에 유리창의파편이 비산하야 한편과손에 부상을받은 학생이만허 할수없이 해산하게되니 시민의 울분도 함께 폭발하야 소련군복을모방한 보안대원정복을 입은자와 왜병군복을 입은자는 닥치는대로 란타하여 十수명의 부상자를내이고 날이저물때 보안대와 소련군에게 붓잡혀 교화소(敎化所)=유치장=형무소=와교화장=유치장=에 수용됨 학생이 四백여명에달하여 모다 혹독한취조와 고문을받으면서도 애국가를불러가며 서로 격려하였고 아직도 十수명은 유치중이라한다

쌀달라는學生行列에實彈銃을亂射

"咸興學生事件"의眞相

事實을蘇軍에呼訴하면

反動分子嫌疑로逆効果를招來

二十여일간 식량배급을 밧지못하고 미곡의자유반입조차 금지된중에서 굶주려 식량을요구하다가 ▲食糧要求▲土地改革法實施反對▲反蘇▲人民委員會의不承認 등 허구의사실을 만들어 자기들의 정당성만 내세우려하고 학생들의 배후에는 자본가 지주와 서울방면에서 파견된 테로단이 있은것이 판명되어 그들을 체포하야 취조중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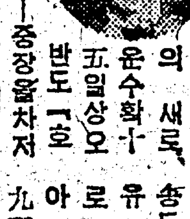
함흥시민들은 이학생사건이 이러난 다음날부터 레이나마 피흘린감스로를 급식량배급과 자유반입이 허락되어 입에 풀칠을하면서도 희생당한 학생들의 부모형제에 애도의말조차 전하지못하는 형편이라고한다 도와시 보안서중이 약속한족의 해방을 위한 소련군 현지당국에 현하의실정과 민심의동향등을 정당하게 이해하도록하기에 노력하면 반드시 조흔시책이 있으련만 사실을위곡하야 까닥하면 반동분자라! 친일파라! 반소운동이라고 고자질을 하기때문에 그들자신마저 소련군의 신임을 잃는 결과를 가저오고있으며 왜놈들이 이를이용하야 미인계(美人計)로서 소련군에아부하며 조선사람을 중상하는것으로 일삼는다고하니 뜻있는자 가슴을 두드리지안흘수없는 애달븐 현실에 처하여있다한다

民需用의醫療藥品

米國에서多量入荷

해방후 일군(日軍)에서사용하든 재고품으로 근근 민중의위생보건을 지속하여오드니 그것도 이제는 품절이되여 염려되여오든중 이번 군정청 알선으로 방금 시가一억六천만원가격 미국약품과의 위생재로가 인천항에 입하중에있다

이 입하될 약품종류는 九十여종에달하며 三백六十六유니트인데 一유니트는 十만인이 一개월의치료를할만한 분량이다 그리고 입하중의약품은 모다 민수용으로 염가배급될터이라한다



洋行하는昆虫標本

…와싱톤大學에보낼膳物…

金秉河氏하將軍에傳達

과학조선의 새로운 수확으로 송도중학(松都中學)교유 김병하(金秉河)씨의 새로운 수확으로 송도중학(松都中學)교유 김병하(金秉河)씨는 一九三二년에 서반아(西班牙)대학에 一九三五년에 서전(瑞典)황태자에 각각 조선곤충표본 八백三십종을 보내여 세계학계에 조선의곤충을 소개하여 당시크게 평판이 놉핫는데 이번에 또다시 하ー지중장에 전달된 곤충표본을 갑충(甲蟲)등 범나비 五일상오 하ー지중장을차저 「와싱톤」대학에 전달하여 조선의 곤충에대한 설명을하는 동시에 여태껏 조선곤충학계에 서 하ー지중장에 전달된八 이잇섯다。그는 일즉부터 아시아의 차사가 보낸것을 약속하였다。

백三십종은 백두산(白頭山) 한나산(漢拏山) 묘향산(妙香山) 지이산(智異山) 울릉도(鬱陵島) 등지에서 전쟁중 고심해가며 채집한것으로 그중 四十종은 외국에 없는 조선특산종인데 하ー지중장은 왜정시대에 이만큼 자연과학을 위하야 노력함에 대하여 극구치하한다음 개인이 가질것이아니라하여 미국 「와싱톤」대학으로 보낼것을 약속하였다。 아로서 다시 귀중한재료는 미국학계에 소개될것으로 채집한곤충과 씨의연구성과는 구미학계에 새로운화제를 던지게되였다【사진은 김병하씨와곤충표본】

數億圓의郵便貯金

北朝鮮遞信部에서無效를布告

(四月十日現在)

미도만한모처에도달된 정보에의하면 지난 四월十일현재로 三八이북에서취급한 저금과 간이보험종액수억원은 전부무효라고북조선체신부에서 공고하였다한다 이번 이러한조치를단행한것은 四월十일현재의 저금과간이보험은 왜제시대에한것이므로 책임질수 없다는것이다

그리고 우편저금은으로 남조선으로 부터보낸 서류우편에대하야 북조선에서는 보통우편과 동일히취급하고있으며 아직찟 송금한위채는 현금지불을개시하지않엇다한다

美軍結縛强盜

死刑·無期懲役言渡

지난一월二十일 인천(仁川)심견(深見)양조장에 침입하야 취침중의미군장교세명을 결박한후 현금과 권총등을 강탈한강도사건의범인 강채석(姜彩錫)(二九)외六명에대한 군정재판은 지난十二일군정청제一회의실에서 재판장「참포니」대좌주심 검사「레일러」소좌합회밋헤서 개정하야三일간에걸처 사실심리를 속행한결과十五일오전十一時반 군정재판참석위원의 비공개투표 결정하였다

"解放의거리에핀佳話"

보라!民衆을指導하는우리警官

해방의거리에핀 가화일편 一지난十일시내본정二정목 경찰관파출소에 이윤(利潤)배당분쟁의판결을바드려고 차저온 두사람의상인이있었는데 이두사람은 시내영락정(永樂町)一정목一三유연진(劉演鎭) 시내영정정一정목一二七최오면(崔五然)양씨로 十六천원의 이윤쟁탈을하다가 결국승부를가리지못하고 파출소에 판결을 바드려온것인바 이사실을 들은황의목(黃毅睦)순경은 두사람을아페노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서로부당이익을 가지고 분쟁을하거나 또는동포상반의 추태를 내어는것은 국민된도리에 이그러지는것이다」라는의미에서 온정적훈화로하야 국민적양심을고취하였는데 두사람은황(黃)순경의 진실한경찰관의태도와 언어에감격하야 그자리에서 자기들의잘못을 회오하고 이득금三천원에 一천五백원을 더내어서동포의 구제사업에 써달라고 가탁하였다

그래서 황순경은 그들에게서바든 四천五백원을인애원(仁愛園)과 향린원(香隣園)또 조선고학생 자치회(苦學生自治會)에 각각一천五백원식을 기부하였다

라지오

夜 ▲六·一五 京城 讀書時間 ▲六·三○ 柔港放送(入中) ▲七·○○ 時報·뉴ー스 ▲七·一五 黨講演 韓國民主黨 ▲七·三○ 民主主義時間 ▲七·四五 레코ー드 獨唱 ▲八·○○ 放送舞台 ▲八·三○ 京畿歌謠 ▲八·四五 週間 ▲九·○○ 時間立體放送小說 ▲九·○○ 時報·뉴ー스 公知事項

招待狀

惡性淋疾·婦人病 蓄膿症·耳病 即治藥

서울市鍾路五丁目七九(郵便局前)

漢藥社 天佑堂藥房

藥品·賣藥·都賣

一流藥品有名賣藥具備各社製藥品 在庫豐富 都賣地方注文歡迎함(但先金注文에限)小包便及自家用車로 出荷함 今般地方人士에便利를圖코저 京城驛前에 出荷部를設置하였으니 만흔利用을바랍니다

서울市古市町一四(京城驛前)(東內書店樓上) 電話本局②八○○九

三和製藥株式會社出荷部

東實化粧品

봄바람에따라 皮膚를, 희고, 곱고, 빗나게하는 高級化粧品이, 新出現!

東實乳液 東實化粧水 東實콜드크림 東實바니싱크림 東實포마드 東實白粉 東實液粉水

漢城市西大門區貞洞一 東實化粧品本舖 電話光化門③一二三·三二二

火災保險(建物商品家財)取扱

新東亞損害保險株式會社

資本金 一千萬圓 全額拂込

漢城市太平通二丁目一一五

電話本局{八三一二 五六八七}番

取締役會長 金東濟

取締役社長 黃翊碩

專務取締役 兪莞昌

寫眞館至急讓渡

希望者는左記住所로

南米倉町二○五의二○號

(南山島居郎바로밋헤)

金永方

內·外·産婦人科

眼·耳鼻咽喉科

(附設皮膚性病科)

金醫院

醫師 金智洙

利川邑京忠車部前

求店舖

本町·鐘路 通 以內에 하야五坪以上

賣借할紹介者厚謝

電話本局六二八八番 ○○

18日부터7日間特別公開

美國映畫第一回輸入

美國메도로社超特作

少年의거리

노ー망·로록監督

스펜사·도레시 밋기·루니 主演

最優秀映畫館스ー파로ー라設備

第一劇場

봄種子팝니다

서울鍾路四丁目九 동양농원

東洋農園

電話東局三一二四番